

간담회 열고 DJ 사저 찾고...호남 대선후보 2인 고향 표심 구어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가 지난 3월 9일 국회에서 열린 퇴임 기자간담회에서 소감을 말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낙연, 선산 방문 후 호남 표발 다지기 나서 광주서 청년 티타임·구례 수해현장 다시 방문

더불어민주당 대권 주자인 이낙연 의원은 최근 광주·전남에 머물며 재보선 이후 지지율 반등을 노리고 있다. 재보선 참패 이후 일부 여론조사에서 한 자리 수까지 지지율이 떨어지면서 이 의원의 향후 정치 행보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그동안 당 대표를 맡고 재보선을 총지휘하면서 본격적인 대권 행보를 하지 못해 지지율이 떨어졌다는 내부 분석도 나오고 있다.

이에 재보선 후유증을 털어내고 적극적인 대권 홍보에 나선다. 먼저 충분히 지지율 반등에도 성공할 수 있다는 전략 속에서 호남

을 찾아 '낮은 곳'에서 다시 시작하는 행보에 집중하고 있다.

19일 이낙연 의원 측은 "지난 17일 전남을 찾아 외부에 알리지 않고 내부 일정을 소화하고 있다"면서 "대권 주자로서 본격적으로 강한 메시지를 내놓고 조직을 재정비 하면 지지율 반등에도 성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19일에는 장애우 가정을 잇따라 방문했으며 '88세 독거노인 어르신 생신상 차리기'(자비신행회 주관)를 함께 했다. 또 광산구 6차산업 체험형 농장, 청년 농업인 면담, 1913 송정시장 청년 소상공인 면담을 이어갔다. 이어 이 의원은 이날 오후 문재인 정부 초대 총리로 발탁되기 전까지 근무했던 전남도청에 들러 김영록 전남지사와 짧은 인사를 나눴다.

앞서 이 의원은 지난 17일 영광 선영을 찾았고, 농업인과 면담도 가졌다. 이어 18 일에는 구례군 수해피해 현장을 재방문해 복구 상황을 점검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18일 총리직 사임 후 첫 외부 일정으로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DJ)의 경기도 일산 사저를 방문했다. /연합뉴스

정세균, 4·19민주묘지 참배 혁명 정신 되새겨 다음주 봉하마을 찾은 후 호남 방문 방안 논의

대권을 향하는 정세균 전 국무총리의 발걸음이 여의도 북귀 시작부터 빨라지고 있다. 정 전 총리는 19일 국립 4·19민주묘지를 참배하고 4·19혁명 정신을 되새겼다. 그는 전날 사임 후 첫 외부 일정으로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DJ)의 일산 사저를 찾으며 대권행보의 신호탄을 쐈다.

정 전 총리는 더불어민주당 5·2 전당대회 이후 예정된 캠프 공식 출범까지 대중과의 접점 확장에 주력할 방침이다.

'정세균 대안론'에 탄력이 붙으려면 우선 '마의 5%'라는 꼬리표를 떼야 하기 때문이다. 정 총리는 이번주엔 광화문 사무실에

서 개인 싱크탱크의 전문가들과 함께 경제정책 구상을 마무리 짓는다.

이어 내주 전국 순회에 나서 더 이상 행정가, 국무총리가 아닌 '대통령감' 으로서 면모 알리기에 나선다.

부산·경남(PK)을 먼저 찾고 대구·경북(TK)에 이어 호남을 방문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지방 순회는 경남 김해 봉하마을의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묘소 참배부터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범(凡)친노(친노무현)'로 민주당 직계라는 자신의 정통성을 부각하는 동시에 당내 친문 표심에도 구애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당의 뒷받침 호남은 전대 기간이라 관심이 집중되는 만큼 며칠간 머무르며 표발 같이 공을 들이기로 했다. 이를 통해 대중들이 정 전 총리를 대권주자로 인식하기 시작하면 지지율도 오를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대통령 “더 성숙한 민주주의로 나아가야”

4·19 민주묘지 참배 후 김수영 시 인용

문재인 대통령은 4·19혁명 61주년인 19일 서울 강북구 국립 4·19 민주묘지를 참배했다.

문 대통령은 참배 후 SNS에 글을 올려 "4·19 혁명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굳건한 뿌리가 됐다. 묵숨보다 뜨거운 열망으로 우리 가슴 깊이 민주주의를 심었던 날"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 땅의 위대한 민주주의의 역사를 기억하면서 더 성숙한 민주주의를 향해 멈추지 않고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김수영 시인의 시 '푸른 하늘을'을 인용하며 "4·19 혁명의 주역들께 시 한 구절을 다시 바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인 인용한 구절은 "자유를 위해서 / 비상하여 본 일이 있는 / 사람이면 알지 / 노고지리가 / 무엇을 보고 / 노래하는가를 / 어찌서 자유에는 / 피의 냄새가 섞여 있는가를 / 혁명은 / 왜 고독한 것인가"라는 구절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4·19 기념식에서도 김수영 시인의 시 '풀 가운데'를 인용하며 "바람보다 더 빨리 울고 / 바람보다 먼저 일어난다"라는 구절을 인용한 바 있다.

다. 문 대통령은 이날 SNS 메시지를 통해 김수영 시인 '자유와 혁명의 시인'이라고 표현한 뒤 "(지난해 기념식이 끝나고) 얼마 후 시인의 부인 김현경 여사가 '시를 인용해줘 영광'이라는 인사와 함께 김수영 전집, 시인의 사진, '풀'의 자필 원고 영인본 사진 등을 보내왔다"고 공개했다.

문 대통령은 "김 여사는 올해 김수영 시인 탄생 100돌을 기려 '김수영 문학관' 건립을 추진 중이다. 잘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

1년여 남겨둔 지방선거 벌써부터 과열 양상?

고흥군수 선거 관련, 미등록 여론조사결과 공표기관 대표 과태료 1500만원

전남도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이하 전남여심위)는 19일 "내년 6월 1일 실시하는 고흥군수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여론조사기관 대표 A씨에게 1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전남여심위에 따르면, 서울소재 여론조사업체 대

표 A씨는 지난 2월 25일부터 26일까지 고흥군수선거 여론조사를 실시한 후, 여론조사결과를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등록하지 않고 3월 초 선거구민에게 공표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108조(여론조사의 결과공표 금지 등)제8항은 '누구든지 중앙선거여론조사심

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등록되지 아니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자는 같은 법 제261조(과태료의 부과·징수 등) 제2항에 따라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남여심위는 "차기 지방선거를 앞두고 일부 선거구에서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다"며 "앞으로 선거여론조사 모니터링을 더욱 강화하고 위법행위에 대해서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윤석열 51% vs 이재명 32%...尹 51% vs 이낙연 30%”

윤석열, 민주당 텃밭 호남서도 이재명·이낙연에 오차내 앞서

리얼미터 대선주자 선호도 조사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여권 대선주자들과의 양자대결에서 50%를 웃도는 지지율로 큰 격차의 우위를 보였다. 민주당 텃밭이었던 호남에서도 윤 전 총장이 41.4%로 이 지사(40.8%)에 근소하게 앞섰다.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지난 16일 전국 18세 이상 1011명을 상대로 가상 양자대결 조사를 벌인 결과, 윤 전 총장은 51.1%로 이재명 경기지사(32.3%)에 앞섰다.

연령별로는 40대에서만 이 지사가 우세를 보였고, 나머지 모든 연령대에서 윤 전 총장 지지세가 높았다.

지역별로는 윤 전 총장이 모든 지역에서 우위를 지켰다. 민주당 텃밭인 광주·전라에서도 윤 전 총장이 41.4%로 이 지사(40.8%)에 근소하게 앞섰다.

윤 전 총장은 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와의 양자대결에서도 51.6% 대 30.1%로 앞섰다. 마찬가지로 40대에서만 이 전 대표가 42.1%로 앞섰다. 이 전 대표의 지역 기반인 광주·전라(윤석열 37.5%, 이낙연 33.5%)를 포함한 모든 지역에서 윤 전 총장 지지가 높았다.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 조사에서는 윤 전 총장이

37.2%, 이 지사가 21.0%로 나타났다. 이 전 대표는 11.0%를 기록했다.

이어 무소속 홍준표 의원 5.9%,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 5.0%, 유시민 노무현대단 이사장 3.2%,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2.4%, 정세균 전 총리 2.4%,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 2.2% 순이었다. 이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 포인트다.

한편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지난 12~16일 전국 18세 이상 251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긍정 평가)는 34.7%였다.

리얼미터 주간집계 기준으로 최저치이던 전주보다 1.3%포인트 상승했다. 부정평가는 61.5%로 전주보다 1.4%포인트 떨어졌다.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이 전주보다 2.3%포인트 하락한 37.1%, 민주당이 0.4%포인트 하락한 30.0%를 각각 기록했다. 이어 국민의당 8.0%, 열린민주당 5.4%, 정의당 4.0% 등이었다. 이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0%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연합뉴스

행정안전부
표창장 수상

**창립
40th**

힘이 되는 든든한 금융파트너

최고 70%
대출한도
아파트 분양자금

최고 80%
대출한도
부동산 담보대출
(최고 **50억원** 한도)

최고 2,000만원
(근로자 최고 1,500만원)
햇살론

★ 정책 및 금융환경 변화에 따라 한도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MG 대광새마을금고

공과금 자동이체(기본 선물 증정) / 카드 체크기 무상 설치
각종 공제(암·상해·화재·보험) 취급 / 문화센터 운영(탁구·요가·노래)

| 본점 | 062)222-5851 | 서남지점 | 062)227-1532 | 지산지점 | 062)222-1431